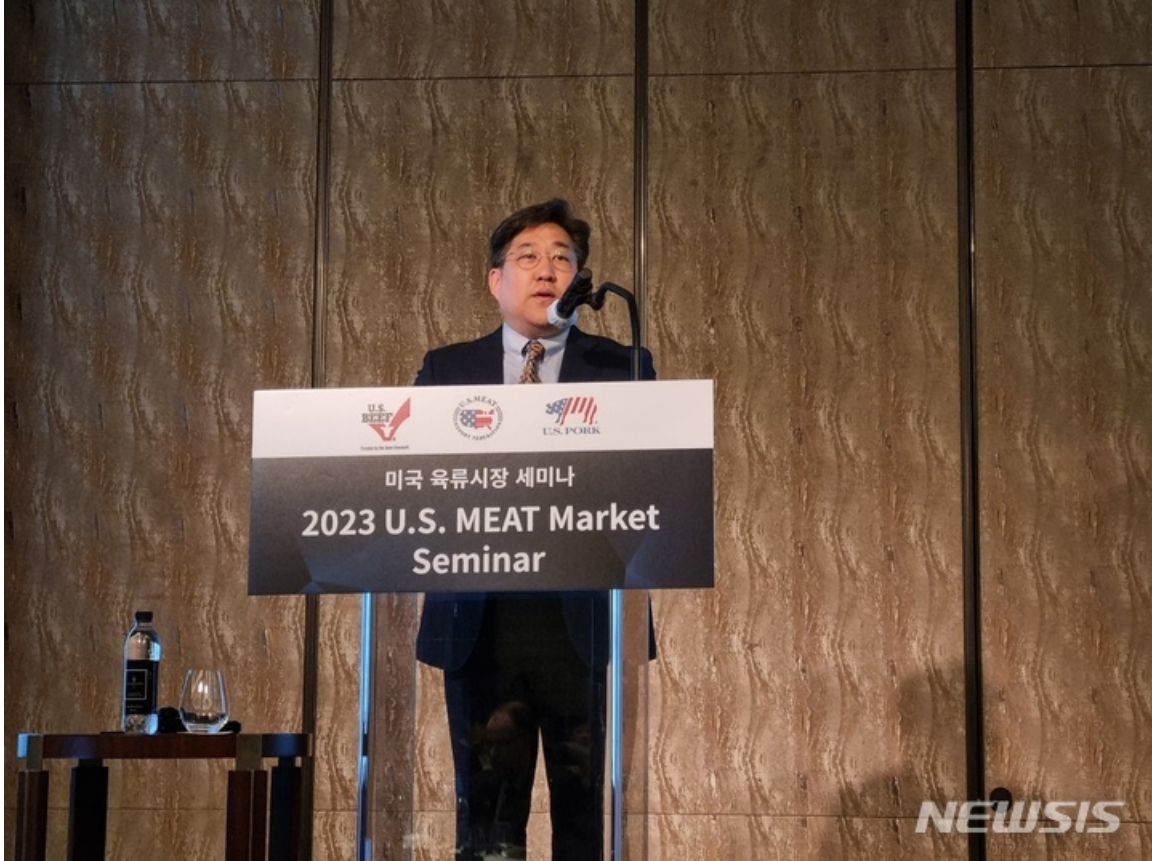


## 미국육류수출협회 "韓 육류 수입, 지속적 증가세 예상"

등록 2023.03.16 16:16:16 | 수정 2023.03.16 17:17:38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올해 글로벌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육류 수입은 지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 상황과는 별개로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소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16일 오후 서울 포시즌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미국 육류시장 세미나 2023'을 열고 국내 육류수급현황 및 전망, 세계 육류무역 현황 및 전망 등을 논의했다.

박준일 미국육류수출협회 한국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2년 한국 수입육업계는 매우 힘든 한해를 보냈다"며 "수입, 유통, 소매, 외식 등 모든 업계가 힘든 한해를 보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 동물 질병, 전쟁 등으로 고통을 겪었는데 2023년에는 밝고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지상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거시적인 관점의 글로벌 경제전망 및 국제무역 환경변화'라는 주제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홍 연구원은 2023년도 경제성장률과 상품 교역 전망 등 세계 무역이 둔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 연구원은 "러·우 전쟁 장기화,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미·중 갈등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는 당초 기대보다 낮은 2% 중후반의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코로나19 종식선언, 러·우 종전, 물가안정 및 금리 정상화 등이 현실화할 경우 세계경제는 4.2% 성장률을 보일 수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러·우 확산, 긴축 통화정책 강화 등이 나타나면 0.4%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점쳤다.

홍 연구원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대응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동향 파악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이형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은 국내외 소고기 수급 전망과 관련해 "국내 생산량은 도축 증가로 2024년까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다"며 "한우 도매가격은 공급 물량 증가로 2024년까지 하락세를 지속할 수 있고 소고기 수입량은 한우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오는 2024년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돼지고기 수급 전망에 대해서는 2023년 이후 돼지고기 생산량과 수입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닭고기는 생산,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생계유통가격이 지난해 1840원 대비 소폭 상승한 1870원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 세션 발표를 맡은 에린보러 미국육류수출협회 수출 및 경제분석 부문 부사장은 "2022년 전세계 식료품 및 외식 소비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런 성장 및 외식업계 회복은 2023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침체에도 미국,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소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은 지속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는 한국의 냉장 소고기 수입의 65%, 냉동 소고기 수입의 51%를 차지했고 지난해 한국의 돼지고기 수입은 2018년 이후 가장 많았다"며 "미국산 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살 수입은 감소했지만 전지 수입은 다른 부위와 함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순수 곡물로 키워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미국산 육류 홍보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기구다.

미국 농무부를 비롯해 미국 내 생산자, 비육업자, 곡물생산자, 정육가공업자, 수출업자 등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